

어등산 개발 방식 원점 재검토...소송전 비화 조짐

광주시, 서진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통보 전문가 참여 TF 구성...공공개발 등 모든 방안 검토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갈등이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광주시는 16년째 표류중인 어등산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에 대한 지위 취소를 통보한 뒤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진건설은 계획대로 사업 이행 의지를 드러

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업체인 서진건설 측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한 뒤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가(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에 대해 서진건설은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이 공모 지침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청문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재추진을 위해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공공개발, 민간합동개발, 민간개발까지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가 공공 개발하거나 시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압박이 있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공공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서진건설 측에

서는 사업 이행 의지를 여전히 내비치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진건설은 2019년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3차)를 거쳐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12월 사업자 선정이 취소돼 행정 소송으로 비화했다.

이듬해 12월 서진건설이 승소하면서 지위를 회복, 협상이 재추진됐으나 총사업비 해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2년여 전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다시 소송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어등산 개발 사

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을 준비하며 손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인 만큼 사업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45년간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전척이 없다.

/오승기기자

서울서 2021 소금박람회 도, 천일염 우수성 홍보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4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프라자 야외광장에서 전남산 명품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2021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국산 천일염의 신뢰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개최해 올해 13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기존 전시·홍보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찾아가는 소금박람회'로 열린다. 전남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장과 천일염의 정보와 역사를 알아보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천일염으로 시작되는 당신의 안목'이라는 소금박람회 슬로건에 맞게 직거래장은 물론, 부대행사로 우리나라 염전과 생태환경, 소금으로 알아보는 세계사 등 소금 갤러리존을 운영한다. 행사장 인근을 지나시는 시민들에게 흥미 있는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월과 9월 서울



전남산 명품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2021 소금박람회가 14일 서울 올림픽프라자 야외광장에서 전남도,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 주최로 열려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국산 천일염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코엑스에서 열린 한가위 명절 선물전과 우수급식외식 산업전에 참가해 명절 선물 구매자와 급식 관계자에게 소금박람회 사전 홍보관을 운영했다.

오는 19일엔 천일염 홍보·판매, 천일염 관련 연구·학술대회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소비자 단체와 체결할 예정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연

이 준 최고의 선물이 천일염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박람회장에서 좋은 소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자치경찰 최우수 제안 '학대 아동 보호체계'

전남, 정책제안 34건 접수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도민 정책제안을 실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을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정책제안은 지난달 22일까지 한 달간 실시, 총 34건의 도민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심

사위원회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을 선정했다.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한 유사 제안 등은 본심사에서 제외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즉각 분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 제안은 지난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해야 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보호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 평가를 받았다.

/임후성기자

광주시립수목원 수목 기증 캠페인 전개

광주시는 15일부터 광주시립수목원의 가치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목 기증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립수목원에 대한 각계 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개인이 소장한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 유전적 가치가 높은 천연기념

물, 보호수의 종자나 후계목 등 중요자원을 수목원에 담을 계획이다

수목은 광주 제1호 공립수목원 지정에 대비해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목록에 활용하는 한편 기증기념물 '시민이 울림'으로도 조성한다.

/이종행기자

'남도음식' 국가브랜드 구축 세계에 알린다

오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온·오프라인 행사 다채

전남도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제 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남도음식의 국제화 비전을 선포한다.

전남도는 14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여성계박람회장과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에서 15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17일까지 이어진다.

15일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록 지사, 김한중 도의회의 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 백신 점종을 완료한 49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은 남도추수한마당 주제 공연, 남도음식의 전통을 잇고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남도음식명인 9명의 공로패 수여식,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축하영상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화 비전 선포식도 열린다. 1994년부터 올해까

지 27년째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음식 축제로서 의미를 지닌 이번 행사에서 남도음식의 역사를 잇고 남도음식을 세계에 알릴 국가브랜드 구축자라는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관은 시·군 음식관과 명인관, 남도음식 영상관, 여수관 등 남도의 맛과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남도음식을 담은 맛깔난 영상으로 꾸며져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남도음식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남도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는 특별히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를 개설했다. 전남 22개 시·군 대표음식과 명인음식 등 남도의 멋스러움과 여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전 세계로 송출한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의 음식문화의 중심인 남도음식은 예로부터 향토의 맛을 간직한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유명하다"며 "앞으로 남도음식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해 그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1면 '초광역협력'서 계속

특히 경제수도, 행정수도에 이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신해양·환경수도'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동권에 조성해 해양·환경 분야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광주·전남이 협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시·군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구간 달빛동맹 및 전남과 부·울·경이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 등 3건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단순히 지방에 예산 조금 더 주는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과의 상생·공존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감한 중앙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초광역 협력사업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투입된 18조 원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임 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